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4)

홍성도 경영학 박사

목 차

제1장 서론	4.1.3 입주시설 및 지원장비 등 기반시설 부족
제1절 연구의 목적	4.1.4 기술, 경영, 정보 및 사업화 지원의 네트워크 취약성
제2절 창업보육센터의 개념	4.1.5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재원 조달방법의 한계
1.2.1 창업보육센터의 정의	4.1.6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경영마인드 부재
1.2.2 창업보육센터의 필요성	4.1.7 국내 창업보육센터 성과의 연구 미흡
1.2.3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4.1.8 입주기업 선정과 졸업제도의 보완 필요
제2장 외국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4.1.9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정책 미흡
제1절 미국의 창업보육센터	4.1.10 대학위주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정책
2.1.1 발전과정	제2절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성공요인
2.1.2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4.2.1 OECD(1997)보고서
2.1.3 미국 창업보육센터의 특징	4.2.2 W. Smilor Raymond의 연구
2.1.4 실리콘밸리 내 창업기업의 성공요인	4.2.3 Lalkaka(1997)의 연구
제2절 일본의 창업보육센터	4.2.4 배종태(1998)의 연구
2.2.1 발전과정	제3절 창업보육센터의 효과적인 지원정책 방향
2.2.2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4.3.1 창업기업 육성관련 금융시장 등 인프라 구축
제3절 주요국의 창업보육센터	4.3.2 자금공급제도와 정책자금의 지원시스템 개선
2.3.1 영국의 창업보육센터	4.3.3 창업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순자산 확인제도
2.3.2 독일의 창업보육센터	4.3.4 사업성이 강한 기술에 기술개발비 지원
2.3.3 이스라엘의 창업보육센터	4.3.5 산업재산권 평가 시 사업성 평가와 기술담보제도
제3장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	4.3.6 창업보육센터 설립에 자금지원 확대
제1절 창업보육센터의 발전과정	4.3.7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와 경영지원 확대
3.1.1 창업보육센터의 발전배경	4.3.8 파생형(Spin-Off) 창업의 활성화 유도
3.1.2 창업보육센터의 발전단계	4.3.9 창업자 보험 및 기업가 연금제도 마련
3.1.3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4.3.10 건전한 기업가 육성을 위한 제도 및 풍토 조성
제2절 지원기관별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4.3.11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환경 벤치마킹
3.2.1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보육센터(BI)	4.3.12 정부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정책 조정
3.2.2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제4절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전략
3.2.3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4.4.1 창업보육센터 소장 및 관리자의 기능과 역할
3.2.4 S/W 창업보육센터	4.4.2 입주기업 선정 시 경영능력 및 시장성 중시 사업성 평가
3.2.5 KAIST의 신기술창업지원단	4.4.3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주요 지원제도
3.2.6 그 외 창업보육사업	4.4.4 졸업제도 효율화를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 차등화
제3절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태	4.4.5 대학의 창업교육과정의 확대 및 현장학습 연계강화
제4장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4.4.6 아웃소싱을 통한 경영지원 및 벤처기업과 성공한 벤처기업
제1절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	과 연계
4.1.1 창업기업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4.4.7 창업보육센터의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재정확보
4.1.2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비효율성	제5장 맺는 말

<그뒤 이번호>

제3장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

제1절 창업보육센터의 발전과정

3.1.1 창업보육센터의 발전배경

급변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의 연구능력활용의 필요성 증대, 기술개발, 상품화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역할분담 논의 등을 감안한다면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 첨단 과학산업단지, 서울 소재 몇몇 대학의 연구단지 개발계획 등은 이를 종합적으로 수용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과 과제들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창업보육센터는 1990년 12월에 제10회 창업지원심의회에서 창업기업보육센터설립 운영지원계획이 의결되고, 1991년 11월에 창업기업보육센터설립 및 업무용준칙의 고시로 보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후 1992년 4월에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동년 11월에는 민간부문에서 (주)중부산업컨설팅이 각각 정부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

중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창업보육이 시작된 시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안산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시작한 1993년 12월로 볼 수 있으며 대학

부문으로 볼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994년 6월에 기술창업지원센터(TBI)를 설립하였다. 차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가 1995년 9월에 처음으로 건립하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에 의해 인터넷 창업보육센터가 1999년 인터넷 비즈니스의 창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30개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7개 도시에 여성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였다.

우리 나라 창업보육센터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시작한지 채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227개가 설립 운영되어 양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나 창업보육센터의 내실이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표 3-1〉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발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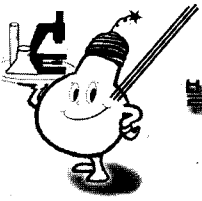
년 도	내 용
1991년	산업자원부 신기술창업보육사업 개시(생산기술원 역외)
1993년	중부산업컨설팅 영동 창업보육센터 설립(국내 최초, 민간 창업보육센터)
199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보육사업 실시(안산창업보육센터 개소) 과기부의 창업보육사업 참여(과학기술원 TBI 설립) 산업자원부 기술창업보육사업 실시(생기원 주관 부산대 등 4개기관 지정)
1996년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사업 실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 주관) 지방자치단체 창업보육사업 참여(서울시, 충청남도 등)
1997년	정보통신부 대학 정보통신 창업보육사업 지원 실시 (정보통신연구관리단 주관 10개 대학 지정)
1998년	중소기업청 대학 창업보육사업 지원 실시(14개 대학)
2000년	140개 창업보육센터 개소, 86개소 개소 준비중
2002년	200여 개의 창업보육센터 개소 예정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1999),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사업의 운영실태 와 효과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적인 통계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서비스 차원에 있어서도 단순한 장소 임대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3.1.2 창업보육센터의 발전단계



우리 나라의 창업보육센터는 1998년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 인프라 확대 과정에 있으며 향후 2001년부터는 급속한 발전과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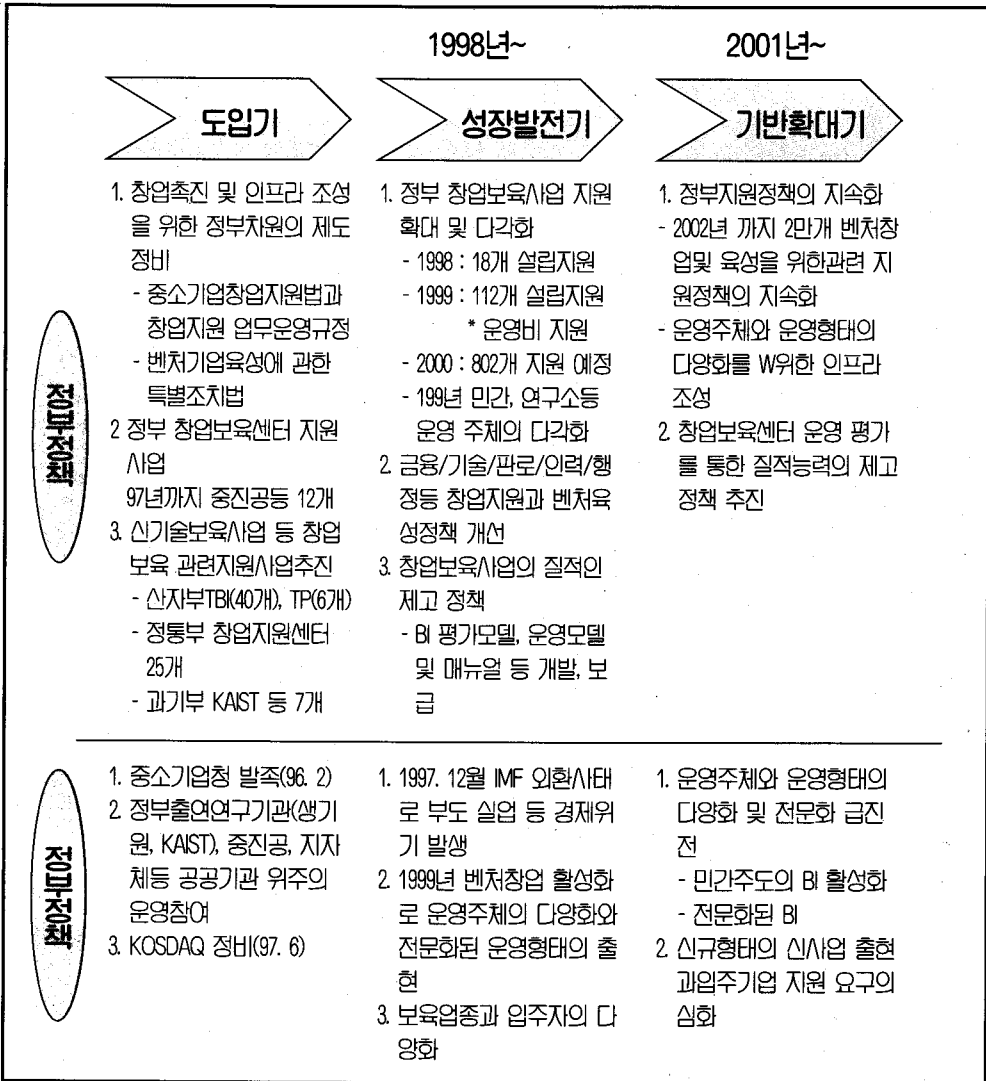
1997년 말까지는 창업보육센터의 도입기로 창업촉진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관련 제도정비,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정책 도입,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관련 각종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시작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기반 확대기로 정부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고, 창업보육센터 설립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대학, 민간 등 다각화되고 전문화된 운영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성장발전기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주체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전문화가 급진전

〈그림 3-1〉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발전단계



자료 : 중소기업청 · LG 생산기술원, 한국형 비 모델과 운영 매뉴얼, 2000[12]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신 사업 출현과 입주기업의 지원 요구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1.3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정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2000년 6월 현재 287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입주 업체 수는 2,968개 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중소기업청 226개에 1,902개 업체 입주, 정보통신부 59개에 886개 업체 입주, 문화관광부 1개에 58개 업체 입주, 과학기술부 1개에 12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1998년 11월 현재 551개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1개의 창업보육센터에 평균 8.3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0개 미만인 창업보육센터가 전체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졸업기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운영한지 3년 미만이어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창업보육센터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 3-2>와 같이 비교적 전국적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1998년 11월 당시 66개중 22개가 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33.3%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00년 3월 현재 140개중 42개로 30%, 2000년 개소 예정까지 합친다면 226개중 71개로 수도권지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입주 기업의 수를 보면 1998년 11월 전체 551개중 232개로 42%나 차지하고 있어 지역적인 편중이 심함을 알 수 있다.[4]

또한 서울, 인천, 대전, 충남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창업보육센터별 입주기업 수가 10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창

업보육센터에 입주할 만한 기업의 창업 수요가 창업보육센터의 증가 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주체에 따른 특성을 보면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을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으로 제한하는 등 특화 된 형태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명시적으로는 특정 업종이나 기술을 제한하지 않는 비 특화 된 창업보육센터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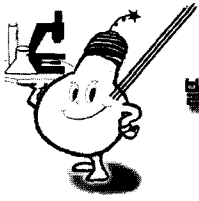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들은 대부분 기술 집약적 또는 벤처기업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이 기술 창업보육센터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간 창업보육센터는 (주) SK, (주) 동부한농화학, (사)고등기술연구원, (주) 아이비즈 (주)메디슨 등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다.[13]

특히 (주) SK 및 (주) 동부한농화학 등 대기업이 창업보육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창업보육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대기업의 창업보육사업 참여로 인해 대기업 연구소가 보유한 첨단기술의 사업화(Spin-off)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벤처기업 창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은 대기업의 경영 Know-how 전수 및 판로확보 등에 특별한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창업보육센터협회(KOBIA)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협회는 지난 '99.12월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소관 BI를



필두로 전국의 116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협회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을 체계적으로 보육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는 1997년까지 12개소였으나, 1998년에는 18개로 늘어났고, 19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112개, 84개에 이르

〈표 3-2〉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 현황

지 역	98년 11월		2000년 3월	
	입주업체 수	운영중인 센터 수	운영중인 센터 수	개소예정 센터 수
서울	174	14	21	10
수도권	인천 16	1	4	1
	경기 42	7	17	18
영동권	강원 17	3	7	6
	대전 72	6	11	4
충청권	충남 33	2	10	6
	충북 1	2	7	6
	부산 46	6	11	5
	경남 0	4	10	6
영남권	경북 21	3	10	7
	대구 37	5	6	2
	울산 0	0	2	1
	광주 48	6	9	5
호남권	전남 10	1	6	3
	전북 34	6	8	5
제주권	제주 0	0	1	1
합계	551	66	140	86

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및 창업보육센터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제2절 지원기관별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창업보육센터는 설립주체나 지원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러 2000년 6월 현재 226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S/W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 7개 지역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200여개의 창업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창업보육센터(TBI)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과학기술부의 신기술창업지원사업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신기술창업지원단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금년 중 문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산업 등 문화산업 부문에 국한한 보육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995년 서울시, 1998년 대전광역시 등의 창업보육센터 설립 참여를 시작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 중 지원기관의 지원 규모가 비교적 크고 많은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는 기관의 특징별로 개요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보육센터(BI)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기금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시작한 기관으로 현재 67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보육센터 건립비의 80%(10억내)를 매년 예산으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대학, 연구소 등의 사업자에게 건물 신축 및 장비 구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보육센터 건립비의 80%(10억 한도)이며, 지원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소 등에 예산지원(출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는 부지확보, 기술지도 운영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건립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은 사업자 지정, 건립비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1999년 이후 매년 20개소를 건립하여 2002년까지 100개의 보육센터를 건립하고 2,000개의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정부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의 기본요건 다음과 같다.

- ① 창업을 준비중인 자
- ② 창업 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입주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외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휴·폐업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다발업종 영위자

- 기타 공단이사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주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1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이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설지원 : 개별임대작업장, 공동이용공간(공동작업장, 회의실, 전시실 등), 공동이용시설(범용제조설비, 실험기기 및 계측설비, 사무기기)
- ② 지도연수 :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시험, 분석, 설계, 제작 등 기술분야
- ③ 기타 지원 : 공단의 타사업 우선지원 등 연계지원 등이다.

3.2.2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는 1998년까지 20개의 대학을 지정하여 12개의 창업보육센터에 총 118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다. 대학 내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는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창업보육사업이다.

본 센터는 대학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게 창업공간 및 각종 경영, 기술지도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신기술을 조기 사업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통신망, PC, 팩스, 복사기, OHP, 사무기기 등 기본적인 시설 및 기기의 구매를 위한 시설비와 센터관리, 통신망 이용, 시설유지보수, 창업활동을 위한 운영비 등이며, 지원 기간은 대학 당 창업지원센터로 선정 후 3년간이며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